

피해자

단편영화 제작 기획서

학과명: 영화영상학과

학 번: -

성 명: 강석주

1. 개요

- ▷ 제목 : 피해자
- ▷ 장르 : 스릴러
- ▷ 감독 / 제작 : 강석주
- ▷ 제작형식 : HD
- ▷ 제작비 : -
- ▷ 런닝타임 : 20분

2. 기획의도

잘못된 사랑 때문에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사람이 사회적 범으로써는 살인마가 되지만 이 사람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제작하게 되었다.

3. 주제

지통재심 - 지독한 아픔이 마음에 있다.

4. 시놉시스

며칠 전 아파트 화재 사건이 발생 하였다. 일가족 중 살아남은 사람은 효정 한 명과 그의 애인인 주안, 2명뿐이었다. 주안은 화재 사건 중 효정을 데리고 나와 살았지만 남아있던 효정의 부모님은 구하지 못하였고, 치료를 받고 완쾌한 효정은 깨어난 후 돌아가신 부모님 소식에 힘들어하게 된다. 둘의 결혼 문제로 부모님과 둘 사이에 어느 정도 갈등이 있었지만 갑자기 사고로 발생한 화재로 돌아가시자 효정은 힘들어 한다. 그런 효정을 주안은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준다. 몇몇 기자와 형사들이 갑자기 일어난 화재 사건에 대하여 조사 차 들렸지만 주안은 그들을 적당히 상대하고 돌려보내는 상황이 계속 되고 돌려보내는 주안의 표정이 좋지 못하다. 주안이 탁자 위에 놓인 물을 약과 같이 먹는다. 효정은 전화를 받고서 그런 주안에게 오늘도 그러냐며 괜찮냐 묻는다. 힘들어하는 주안을 위해 효정은 둘이 조용히 여행을 잠시 갔다 오자 하고, 주안은 받아들인다.

효정이 퇴원하고 며칠 후 이른 아침 햇살을 받으며 한적한 시골길을 운전하며 이동하는 자동차 한 대가 있다. 효정을 위한 여행이기에 주안은 조용

히 숲길을 따라 들어가며 밝게 웃어주며 여행 기분을 나타내 주고 효정은 웃으면서 기분을 내려한다. 효정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오고 벨소리를 들은 주안의 표정이 좋지 않다. 차 안에서는 라디오를 통해 최근 화재 사건이 단순 사고가 아닌 타살 의혹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온다. 대수롭지 않게 주안은 라디오를 돌려 버린다.

차는 이어 천천히 한 펜션 앞에 멈추어 서게 되고 차에서 내린 주안과 효정은 펜션과 주변 환경을 보며 좋아하고 있는데 때마침 효정의 큰아버지인 대식이 나온다. 대식이 주안과 효정에게 인사를 나누며 돈독한 모습을 보인다. 때마침 효정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벨소리를 들은 대식의 표정이 좋지 못하다. 효정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대식은 주안에게 혹시 사건 날 단 둘이 있었는지 묻게 되고 주안 그렇다 말을 한다. 주안이 효정 쪽으로 다가 가고 펜션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대식은 굳은 얼굴로 지켜 본다.

주안과 효정은 자신들이 머물 방으로 들어서며 짐을 푸는데 효정은 주안에게 큰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누는데, 주안은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떠나간다. 주안은 다시 입구로 나와 주변을 보던 중 대식을 만나게 되고 도와 주겠다고 다가서지만 대식은 받아주지 않으며 묘한 긴장감을 나타낸 후 혼자 펜션 안으로 들어간다. 짐을 풀던 효정은 주안이 나가서는 오지 않자 뒤 따라 마당으로 나오다 계단에 서 있던 대식을 만나게 된다. 효정은 대식을 돕겠다고 같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른다. 때마침 담배를 피고 들어온 주안이 보게 되고 내가 하겠다고 효정의 곁으로 다가가지만 담배냄새를 맡은 효정이 인상을 찌푸린다. 향수를 뿌리고 오겠다고 효정을 두고 주안이 먼저 올라가는데 효정의 표정이 여전히 굳어 있다. 효정은 잠시 병실에서의 일을 회상하게 되는데 병실을 나가려던 중 밖에서 형사들의 대화를 엿듣게 된다. 사건 현장 속에서 라이터가 발견되었다는 얘기가 들렸고 비흡연자 가족이었던 효정은 주안을 떠올리며 의아해 한다.

회상하던 효정을 대식이 말을 걸어 깨게하고, 둘은 사건에 대해 잠시 얘기를 나눈다. 효정이 라이터에 대한 얘기를 대식에게 하게 되었고 대식의 표정이 굳게 된다. 때마침 주안이 방에서 나와 효정에게 다가오고 둘의 모습이 이상하다 여긴 주안은 서둘러 효정을 데리고 나간다.

주안과 효정은 주변 산책로를 걸으며 서로 사진도 찍으며 걷는다. 아무말 없이 걷는 효정을 보고 주안은 잠시 멈춰 세운다. 그때 효정은 주안에게 부모님이 정말 화재사건으로 돌아가신 걸까 라는 의문을 말하게 되고 주안은 당황하여 언성을 높인다. 효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주안을 지나쳐 간다. 그런 효정을 바라보며 주안이 ‘너만 있으면 돼’ 라는 말을 말한다.

다시 펜션에 돌아왔을 때 부엌에서 요리하던 대식을 마주치게 되고 곧 저녁 준비를 하니 기다리라고 전한다. 효정은 그런 대식을 도와주겠다며 부엌으로 들어간다. 부엌에 들어가 둘이 요리하는 모습을 주안이 무표정하게 쳐다본다. 대식이 가스렌지의 불을 켜고, 불이 올라오는 것을 무심코 보던 효정이 멍하니 바라보게 되고 그녀의 귀에 이명처럼 부모님의 비명과 주안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린다. 살려달라는 부모님의 목소리와 주안의 목소리가 기억나면서 손이 떨리게 되고 그때 재료를 다듬던 효정이 칼에 베이게 되는데, 대식이 약상자를 갖고 온다 말하고 자리를 벗어난다. 주안이 당황해서 효정의 상태를 보려하지만 효정은 그를 거부한다. 왜 그러냐는 주안과 거부하는 효정의 모습을 대식이 보게 되고 대식은 주안을 막으며 효정이 왜 이러는지 모르냐며 성을 낸다. 둘이 곧 싸울 것 같은 모습에 효정은 주안을 데리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간다.

주안은 효정의 다친 손을 말없이 치료한다. 치료하는 손에 힘이 들어갔는지 효정이 아! 하며 아파한다. 효정의 소리에 잠깐 놀란 주안이 미안하다 한다. 주안이 대체 왜 이러냐는 말을 하게 되고 효정은 불이 무섭다 말을 한다. 또 너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말을 한다. 주안은 그 말에 당황하고 효정은 진실을 요구한다. 당황한 주안이 계속 무언가를 찾듯이 짐을 뒤지는 이상한 모습에 효정은 겁을 먹는다. 효정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주안은 회피하듯 자리를 떠난다. 주안의 손에 약 봉지가 쥐어져 있다.

부엌에서 물을 꺼내 약을 먹으려던 주안의 귀에 벨소리가 들려온다. 놀란 주안이 누구냐며 찾고 칼을 들고 있는 대식을 보게 된다. 이 노래 듣고 생각나는 것 없냐는 대식의 말에 주안이 대체 넌 뭐야라는 질문을 던지고 대식은 그 날 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는 사람이라 말한다.

그 날 효정이네의 테라스에선 효정의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고, 그 앞에 주안이 칼을 들고 서 있었다. 효정의 아버지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던 중이었는지 핸드폰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안은 핸드폰을 끄려 다가갔지만 이내 자신의 핸드폰이 울려 통화 너머의 대상이 그 소리를 들었을까 서둘러 전화를 끊는다.

대식은 그 사람이 자신이었고 죽이겠다며 칼을 휘둘러 온다. 주안은 제빨리 몸을 피하지만 결국 어깨를 찔리게 된다. 대식은 아프다 발악하는 주안을 무조건 죽이겠다며 힘을 준다. 그러나 뒤이어 주안을 쫓아 내려온 효정의 비명소리에 당황하여 손에 힘을 풀게 되고 그 기회를 틈타 주안은 칼을 빼어 대식을 찌른다. 죽어가는 데도 대식은 효정에게 도망가라 하지만 효정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는다. 주저앉은 효정에게 힘겹게 피를 흘리며

주안이 다가온다. 자신을 거부하는 효정에게 주안은 너마저 그러지 말라는 말을 한다. 슬피하며 남들은 나를 고아라고 무시했지만 너희 부모님도 무시했지만 너마저 그러지 말라는 말을 한다. 그런 주안을 무시하고 효정은 천천히 대식에게 다가간다. 대식의 시체를 바라보며 멍하게 있는 효정을 주안이 뒤에서 끌어안는다. 난 너만 있으면 된다는 주안의 말을 들으며 효정은 자신 앞에 있는 대식에게 꽂혀 있는 칼을 보게 된다. 칼을 빼어든 효정은 뒤돌아 주안을 끌어안으며 찌른다. 주안은 그런 효정에게 뭐라 말하지 못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채 죽는다.

병실 안, 효정은 침대에 수갑이 채워진 채 멍 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형사들이 그런 효정을 보다 살인자지만 딱한 사정에 참 안된 일이지 않냐는 대화를 나눈다. 어디선가 효정과 주안의 커플 벨소리가 흘러들어온다.

5. 캐릭터 구성

주안 : 효정에게 헌신적이며 집착이 강하다. 외면은 밝아 보이지만 내면은 고아로 자라서 외로움을

많이 타고 사랑에 대한 집착성이 강하다. 양면성이 강한 인물이다.

효정 : 사고 전에는 밝은 인물 이였으나 사고로 부모님이 다 죽고 일가족 중 홀로 살아남아 밝은

모습은 사라졌다.

대식 : 효정의 큰아빠로 가족을 잘챙기고 대식에게 있어 가족은 늘 1순위이다. 주변 사람을 잘 챙기고

인덕이 좋지만 그 만큼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 무슨 일이 있으면 헌신적으로 도와준다

6. 모티브

<벨소리> : 벨소리의 의미는 알림 혹은 흔적, 연결 고리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벨소리를 듣고

전화를 받거나 소식을 전달 받기 위한 매개체로서 존재한다. 여기서 주안은 자신의

사건 현장 속에서 자신의 벨소리가 누군가에게 들켰다는 것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대식은 그 현장 속 벨소리를 듣게 되었고 사건 현장의 실마리를 아는 존재로

있다. 나중에 이 벨소리가 주안의 범행을 들키게 되는 연결점이 되어 주고 대식에게

주안이 범인이라는 알림이 되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7. 시나리오

S# Prologue 병실 (실내/D)

주안이 병실 문을 닫으며 안으로 들어선다.

효정은 전화하고 있다.

밖에선 플래쉬가 터지는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린다.

효정 : 네...큰아빠. 네 퇴원하면 찾아 갈게요. 네...

효정은 전화를 끊고 들어온 주안을 본다

주안은 방 안을 서성인다.

주안이 방안에서 다급히 물을 집어든다.

효정 : 주안아 힘들었지?

주안 : (물을 마시며) 어..어..그냥 좀 기자들이랑 또 형사들이랑 그리고 또 어...

주머니에서 약 봉지를 꺼내들고 먹는다.

주안이 손에 든 빈 약 봉지를 쓰레기통에 버린다.

진정된 모습의 주안이 효정 옆에 살며시 앉는다.

효정 : 주안아 퇴원하면 우리 어디 잠시 바람 좀 쐬까?

주안 : 좋지 가자. 어디로 가고 싶어?

효정 : 음...비밀

효정이 주안을 가볍게 끌어안는다.

타이틀.

S# 1 차 안 (실내/D)

주안 : 좀만 더 가면 도착하겠는데? 맞지?

효정 : 응

주안 : 큰아버님께서 펜션도 운영 하시고 몰랐네.

효정 : 말 안했으니까

효정의 핸드폰 벨 소리가 울린다.

벨 소리를 들은 주안의 표정이 굳는다.

효정 : (전화를 받는다) 네. 네 큰아빠 곧 도착해요.. 네 알겠어요.

벨소리와 같은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다

이어 차 안에서 뉴스가 흘러나온다.

최근 화재 사건이 단순 사고가 아닌 타살일지도 모른다는 소식이다.

주안이 슬며시 라디오를 돌린다.

S# 2 펜션 마당 (실외/D)

마당으로 차 한 대가 들어온다. 차가 멈추고 주안과 효정이 내린다.

주안 : 짐은 내가 내릴게. 쉬어 쉬어

주안이 차에서 짐들을 내리고, 효정은 펜션 주위를 둘러본다.

펜션 안에서 대식이 나온다.

대식이 짐을 내리는 주안 쪽으로 다가온다.

대식 : 잘왔다 잘왔어. 어서오세요. 효정이 큰아버지 됩니다.

주안 : 네 이주안입니다. 반갑습니다.

효정 : 뭐예요...? 조카보다 남자친구한테 관심이 더 크시네?

대식 : 내 조카를 구해준 사람이라는데 당연하지 않겠니! 짐은 내가 옮겨드릴게요.

여기가 내 집이다 생각하고 푹 쉬었다 가요.

주안 : 감사합니다.

효정의 핸드폰이 울린다.

효정 : 잠시만, 전화 좀 받고 올게.

효정이 대식과 주안 곁에서 벗어난다.

대식은 효정이 간 방향을 보고 있다. 표정이 굳어 있다.

대식 : 아 저기 주안씨? 그 날 동생네에 주안씨랑 효정이 말고 누구 없었죠?

주안 : ...네

대식 : 그렇겠죠? 당연한 걸 물었네 미안해요. 전화 끝나가는 것 같은데 효정이 데리고 먼저 들어가요.

효정과 주안이 들어가는 모습을 짐을 내리다 말고 대식이 쳐다본다.

대식의 표정이 굳어 있다.

S# 3 펜션 2층 방(실내/D)

주안과 효정이 방 안에 들어온다.

효정 : 우리 큰아빠 언제 퀘장지?

주안 : 그러게. 인상도 좋으셔.

효정 : 내겐 이제 부모님 같은 분이야...

주안이 어두운 표정의 효정을 굳은 얼굴로 바라본다.

주안 : 효정아! 나 잠시 나갔다 올게.

주안이 방 밖으로 나간다.

S# 4 펜션 마당 (실외/D)

주안이 마당을 둘러본다. 대식이 짐을 꺼내 온다.

주안 :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주안이 손을 내민다.

대식은 손을 바라보기만 한다.

대식 : 효정이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주안 : 아닙니다... 효정이 밖에 못 데리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대식 :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주안 아무 말 없이 대식을 바라본다. 묘한 긴장감.

대식 : 내가 짐 올려다 줄 테니 마당이나 한 번 보고 있어요.

대식이 펜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그의 뒷모습을 주안이 쳐다본다.

S# 5 펜션 계단 (실내/D)

대식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계단에 올라서다 효정을 만난다.

대식 : (웃으며) 효정아 짐 옮기는데 도와줄래?

효정 : 네 큰 아빠.

효정이 살짝 미소 지으며 대식 옆의 짐을 들어준다.

뒤에서 대식이 효정을 바라본다.

주안 : 효정아? (효정에게 다가가며) 내가 들어줄게

효정 : (인상을 찌푸리며) 담배냄새...

주안 : (당황하며) 아, 하하 미안 미안, 담배 좀 피고 왔어

효정이 주안을 바라본다. 대충 웃으며 얼버무리는 주안이 보인다.

S# 6 병실 (실내/D) - 회상

효정이 문 앞에 서서 나가려고 문을 잡으려다 멈춘다.
문 밖에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린다.

형사1 : ...아 그렇다니까, 이건 분명 인위적 사건이야. 가스가 찢겨져 있던 것도 그렇고...

형사2 : 그래요? 근데 그럼 누굴까요... 용의자는 2명인데 설마...

형사1 : 그나마 다행인건 현장에서 쓰인 듯 한ライター가 발견 됐으니까 조사해 봐야지...

효정의 표정이 굳어있다.

효정 : (작게)ライター...?

S# 7 펜션 계단 (실내/D)

주안이 효정을 지나치면서 말한다.

주안 : 효정아 미안해. 금방 향수 뿌릴게.

효정 : (뒤돌아 방으로 가는 주안을 바라보며) 그래...

그런 둘의 모습을 보던 대식이 효정에게 말을 건다.

대식 : 담배 피나보네?

효정 : 끊었다 했는데...

대식 : (작은 목소리로) 끊기는 무슨.

효정 : 네? 뭐라고요?

대식 : 아무것도 아니야. 짐이나 옮기자

효정 : 네.

대식이 먼저 짐을 들고 방 쪽으로 다가간다.

대식 : 아! 효정아.

효정 : 네?

대식 : 아직 현장 수사 중이지?

효정 : 네... 아마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대식 : 그래? 라이터 같은 건 없었데?

효정 : 그게...네.

대식 : 하긴 니 아버지는 비흡연자였으니까. 있을 리가, 있으면 안 되지.

주안이 방에서 나오면서 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주안이 효정 옆에 선다.

주안 : 무슨 얘기하는데 표정이 이렇게 어두워

효정 : 아니... 아무것도.

대식 : 아니 그저 얘기하다보니 아버님 얘기가 나와서.

(주안의 눈을 직시하며) 내 동생이지만 나랑 다르게 참 흡연도 안하고 깔
끔했거든

뭐 그렇다고. 둘이 나가서 산책도 하고 그래요.

주안 : 가자 효정아.

주안은 효정을 데리고 밖으로 나간다.

주안의 표정이 굳어있다. 대식의 표정도 굳어있다.

S# 8 산책로 (실외/D)

주안이 효정을 사진 찍어 주면서 같이 걷고 있다.

주안 : (사진기 들고) 자 효정아~ 여기 봐봐

효정이 바닥만 보고 걷고 있다.

주안이 사진기를 내려놓고 멈춘다. 주안이 멈추자 효정이 주안을 바라본다.

효정 : 주안아, 왜 돌아가셨을까 갑자기 화재 사건도 그렇고...

기자들이 자꾸 왔던 거랑 또...

주안 : 효정아 또 왜 그래. 그냥 단순 사고 였어 사고! 알잖아

효정 : 그래 알지... 내가 괜한 말을 했어. 미안.

효정이 주안을 지나쳐 간다

주안은 효정의 뒷모습을 본다

주안 : 미안해, 난 너만 있으면 돼.

S# 9 펜션 부엌 (실내/N)

주안과 효정이 펜션 안으로 들어온다. 부엌에서 대식이 요리를 준비 중이다.
그런 대식을 보게 된 효정이 잠깐 멈춰 선다.

대식 : 아! 왔니? 곧 저녁 준비해 줄게. 와서 식사들 해.

효정 : 아니에요. (두 팔 걷어 올리며) 저녁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해야 됐는데 감사해요.

찌개가 올려져 있던 가스렌지의 불이 빛나고 있다. 효정은 무심코 바라보게 된다.

효정 : (불빛을 뻘히 쳐다본다)

효정의 귀로 환청이 들린다.

부모님의 비명소리, 효정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그 속에서 주안의 웃음소리.
주안이 ‘효정아 너만 있으면 돼’ 라는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린다.

주안 : 효정아?

효정 : 어? 어...

주안 : 왜 그래 멍하니

효정 : 아.아니야

효정은 다시 도마를 바라보고는 재료를 다듬으려 한다.
칼질을 하던 중 칼에 베이게 된다.

효정 : 아!

대식 : 아니! 조심 좀 하지. 잠깐 기다려봐!

대식이 서둘러 어디론가 가고, 주안이 효정을 간호하려 한다.
자신에게 붙은 주안을 효정은 밀친다.

주안 : 효정아...?

효정 : 저리가!

주안 : 왜.왜그래 대체! 일단 상처부터 보자 응?

효정은 주안을 경계하며 선불리 다가서지 못하게 한다.
대식이 돌아오고 손에는 약상자가 들려 있다.

대식 : (효정의 손을 자신에게 끌며) 으... 심하진 않아도 아프겠네.

대식이 효정의 손가락을 치료해준다. 옆에서 주안은 바라본다.
주안의 표정이 일그러져 간다.

주안 : 제가... 할게요!

대식 : 아니 됐어! 이 정돈 내가 하지.

주안 : (대식의 손을 잡고)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대식 : 지금 안 보여? 피가 나는데 누가 치료 하는 게 중요해?
(불쪽을 한 번 보고는) 그리고 지금 왜 베였는지 모르겠어?

주안이 불쪽을 바라본다. 주먹을 짊 쥐다.

효정 : (주안의 손을 잡으며) 그만해! 나 아파! 괜한 곳에 화풀이 하지마!

효정이 주안을 잡고 끌고 간다.

S# 10 펜션 2층 (실내/N)

주안이 의자에 앉아 있는 효정의 손가락을 치료해 주고 있다.

효정은 아무 말 없이 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손을 바라본다.

주안이 치료하던 중 손에 힘이 실린다.

효정 : 아!

주안 : (손을 멈추고 바닥을 내다보며) 왜 그래 대체...

효정 : ...

주안 : 아니...!

효정 :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주안 : 아니 그게...

효정 : 난! 불이 무서워! 선명하게 빛나는 불이!

그리고 네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주안 : 그.그게 무슨 말이야.

효정 : 불을 봤는데, 네 웃음소리가 들렸어. 그 날...그 날....

주안이 갑자기 자리를 벌떡 일어난다. 자신의 짐 쪽으로 가더니 짐을 뒤지기 시작한다.

효정 : 뭐야 왜그래, 무섭게... 주안아? 주안아

효정의 물음에도 주안은 부산스럽게 짐을 뒤진다.

효정 : 주안아... 주안아? 뭘 그렇게 찾는 건데

또 약이지...? 무슨 약이야 대체! 뭔데 그 날도 찾고 계속 그래!

주안이 효정의 물음에도 답하지 않고는 짐을 뒤지고 있다.

효정 : 주안아... 정말 너야...? 형사들 기자들 그 사람들 얘기 전부다 맞아? 맞냐고!

주안이 짐을 찾던 행동을 멈칫 한다.

주안 : 무.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이.이따 다시 얘기하자.

주안은 다급히 손에 약 봉지 하나를 들고는 효정을 지나쳐 방 밖으로 나간다.
뒤에서 효정이 주안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S# 11 펜션 부엌 (실내/N)

계단에서 내려온 주안은 부엌 냉장고를 열고는 물을 꺼내 든다.

덜덜 떠는 손으로 약을 먹으려 한다. 효정의 벨소리와 같은 노래가 들려온다.

주안의 손이 멈춘다.

주안 : (마시려던 물을 내려놓고) 누.누구야!

대식이 부엌으로 들어온다.

대식 : 이 노래에 찢리는 게 있나봐? 그래?

주안 : 당신 대체 뭐야...!

대식 : 나? 니 새끼가 그 날 뭘 했는지 아는 사람!

주안이 동그랗게 뜬 눈으로 대식을 바라본다

S# 12 효정네 테라스 (실외/N) - 회상

주안이 칼을 들고 숨을 몰아쉬며 서있다.

주안 앞에 한 남성 시체가 눕혀져 있고 손 옆에 핸드폰이 켜져 있다.

대식(통화음) : 여보세요? 여보세요! 춘식아! 여보세요?!

주안이 핸드폰 쪽으로 걸어와 집는다.

주안의 핸드폰이 울리게 된다.

주안이 다급히 전화를 끄고는 내팽개친다.

주안이 급히 자리를 벗어난다. 춘식의 핸드폰이 계속 울린다.

S# 13 펜션 부엌 (실내/N)

주안 : 뭐라고?

대식 : 너가 내 동생을 죽였을 때! 통화하던 장본인! 그게 나야.
분명히 벨소리가 들렸었지!

대식이 서서히 다가온다. 주안이 서서히 뒤로 물러난다.

주안 : 다.당신...! 당신이었어! 그 목소리!!

대식 : 그래 나다 이 새끼야! 죽어!

주안이 몸을 뒤로 피한다.

대식이 다시 칼을 찢러 들어온다.

주안이 다시 피하려는데 뒤에 벽에 막혀 다 피하지 못하고 어깨를 찢린다.

주안 : 아악! 이 씨발! 아파!

대식 : 아프냐? 어? 이 개새끼야 아프냐고! 춘식이네를 니가! 니가!!

대식이 손에 힘을 준다.

주안이 대식의 손을 붙잡고 밀어내려 한다.

효정 : 까악!!!

뒤따라 나왔던 효정이 비명을 지르고 들을 쳐다본다.

대식이 놀란 눈으로 손에 힘을 풀고 효정을 바라본다.

대식 : 효.효정아! 도망가! 빨리 나가서 신고해! 이 새끼가 범인이야! 얼른!

효정은 서서 움찔거리기만 한다.

효정 : 크.큰아빠! 뒤!

대식이 다시 주안을 바라볼 때 주안이 자신의 어깨에서 칼을 빼내 곧 대식을 찌른다.

대식이 자신의 배에 찔린 칼을 보고는 힘없이 주저앉는다.

주안 : 하아...하... 씨발... 아파... 개새끼...

효정 : 이.이주안...너...너...

주안이 손에서 칼을 놓고 효정을 바라본다.

주안 : 효.효정아 그.그게 아으...! 아파... 아.아냐! 그런거!

그.그래 사.사고야! 사고!

주안이 어깨를 붙잡고 천천히 다가오려 한다.

효정 : 오.오지마!

주안 : 왜.왜그래 효정아. 응? 그러지마!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마!

그.그래 내가 다 죽었어! 너희 아빠도 너희 엄마도!

다 날 고아라고 무시했다고! 그.그럼 안 되는 거잖아

주안이 힘이 풀리는지 주저앉는다.

주안 : 효.효정아 나 아파... 너는 나 무시하지 말아줘...

효정이 천천히 걸어서 주안을 지나쳐 대식 앞에 주저앉는다.

효정 : 큰아빠...왜...대체 왜...

주안이 천천히 기어와 효정을 끌어안는다.

주안 : 효정아 난 너만 있으면 돼. 나 아파. 피나.

효정이 초점 없는 눈으로 앞을 보다가 대식에 꽂혀 있는 칼을 본다.
천천히 칼에 손이 다가간다.

주안 : 미안해 효정아. 미안해. 방해하는 것들은 싫어...

효정이 주안을 끌어안듯이 손을 올리고 주안의 등을 찌른다.
주안의 눈이 커졌다가 천천히 효정을 바라본다.

주안 : 미안해...

주안이 힘없이 쓰러져 내린다.
효정은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주안을 바라본다.

S# Epilogue 병실 (실내/D)

침상 옆에 형사 둘이 서서 얘기를 하고 있다.

형사1 : 화재 사건 가해자는 이미 죽었고...(효정 쪽을 바라보고는 한 숨을 쉰다)

형사2 :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형사1 : 여자만 안 된 거지 뭐, 남자가 알고 보니 정신적 문제가 있더라.

형사2 : 어떻게 숨기고 살았네요. 몰랐던 여자도 참...

형사1 : 췌... 일가족 전부 살인되고 불쌍한 여자야.

효정이 병실 침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손에는 수갑이 침대와 연결되어 잠겨있다.

어디선가 효정의 벨소리와 같은 노래가 들려온다.